

목포권

목포~압해 길은 안개속 야간 출항...2시간 표류

야간운항 규정 마련 시급

현행 법규 주간에 맞춰져 야간 통제 한계

압해~목포 북항간 야간운항이 시작된 지 20일만에 무리한 운항으로 해상에서 1시간 50분 동안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 야간운항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밤 8시50분 압해도 선착장을 출발해 목포 북항으로 향하던 압해능함 1호선(95t)이 짙은 안개와 레이더 장치 운용 미숙으로 밤 10시 40분경에 목포 북항에 입항했다. 당시 이 배에는 선원 3명을 포함 승

객 57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시간 50분간 불안에 떨어야 했다.

목포해경은 사고 발생 직후인 6일 밤 9시30분에야 모든 도선 운항을 중지시켰다.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짙은 안개에도 출항이 가능한 관련 법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해운법은 주간운항에 맞춰 가시거리가 1km이내일 때 운항중단을 명령하도록 규정돼 있어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야간운항 규정이 별도로 마

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신안군이 증도, 임자도 등 원거리 야간운항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야간운항에 대한 규제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의 경우 안개 등 기상 악화에 따른 운항통제 여부를 현지 파출소나 출항지 민간통제위원회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 야간운항에 대한 안전 보장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사고 배가 출항한 압해면도 현지 민간 통제위원회이 있으나 가시거리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신안 전통마을 숲 복원

신안군 안좌면 대리마을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이 최근 완공됐다. (사)목포 생명의 숲은 한국녹색문화재단과 신안군청과 공동으로 지난해 6월부터 대리마을 전통 숲 복원사업에 착수,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나무들을 치료하고 마을 숲 경계 복원 등을 마무리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신안 '참숯 돌김' 서울서 인기몰이

게르마늄 갯벌에서 생산된 돌김에 함초 성분을 첨가한 신안 '뚱뚱마디 참숯 돌김'이 서울 등 대도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참숯 돌김은 지난 달 일본의 한 업체와 일반 김의 3배인 속(100장) 당 1만 5천 원에 15억 원 어치 판매 계약을 맺는 등 수출 길을 열었다. 또 서울 등 대형 백화점과 관광호텔 등 특산물 코너에서

함초첨가미네랄 풍부 백화점 등 품귀 현상

도 인기가 높아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증도면 증도 김발전 영어조합 관계자는 "참숯 백탄과 함초를 이용한 기능성 김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해 지난 해 6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면서 "함초를 제취해 물로 깨끗하게 씻은 후 기계로 압축해 함초액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초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염생식물로 바닷물과 가까운 갯벌이나 염전 주변에서 자라는 한해살이 풀, 우리말로는 뚱뚱마디로 불린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천일염 세계 명품으로 키운다

전남도, 특화단지 조성...유네스코 등재 추진

전남도는 천일염 특화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산업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특산물인 천일염을 세계적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오는 6월까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천일염 연구회' 운영회를 개최, 분야별 연구와 토론을 거쳐 '천일염 산업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총 사업비 3억5천 만 원을 들여 토관 천일염 특화시범단지 30ha, 함초 천일염 특화시범단지 100ha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천일염 생산지를 관광지원으로 만들기 위해 도비와 군비 등 모두 3천 만 원을 투입, 염전체험장 3개소를 조성하고 천일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천일염 생산지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용역도 도비 7천만 원을 들여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전국 생산량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네랄이 다량 포함된 서남해안의 갯벌에서 생산된으로써 수입 염에 비해 우리 몸에 적합한데다, 산화가 적고 천연 미네랄도 풍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2월 천일염을 직접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공전' 개정안을 입안하고 했으며, 조만간 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목포항 하역작업 빨라진다

트랜스포터 등 장비 보강

목포항 하역장비가 대폭 보강돼 신속한 물자수송이 가능해 됐다.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재현)은 올해 크레인 등 하역장비 11대를 새로 도입하거나 교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추가 배치되는 하역장비 중 '트랜스 포터'(사진)는 철재류 및 선박탈목 등 중량물을 하역하는데 필요한 첨단 운송장비로 각각 450t과 40t 규모로 설치된다.

목포해수청은 지난해에도 크레인



12기를 비롯해 트랜스포터 4기, 트레일러 7대, 지게차 등 19대의 하역장비를 보강했다

목포해수청은 지속적으로 하역장비를 현대식 장비로 교체, 항만하역 및 운송효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

해양문화축제 주제 공모

목포시가 '2007 목포해양문화축제' 주제 및 프로그램에 대해 시민 제안을 공모한다.

주제는 지역특성과 목포해양문화축제와 부합되고 축제 참여 및 방문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오는 24일까지 목포시청(www.mokp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접수된 제안내용은 목포 해양문화축제 추진위원회 및 기획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각 분야별 우수제안에 대해 5명씩 최고 20만 원 상당의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목포해양문화축제'는 오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평화광장 일원에서 열리게 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에 어린이 바다체험 과학관 짓는다

시, 삼학도에 30억 들여 내년 신축

목포에 어린이 바다체험 과학관이 건립된다. 목포시는 지역의 과학 여건을 개선하고 어린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어린이 바다체험 과학관을 내년 말까지 건립키로 했다

이 과학관은 30억원이 투입돼

삼학도 근린공원 내에 1천㎡, 2층 규모로 신축된다.

바다체험 과학관은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지방 테마 과학관 건립 신규 사업에 포함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 공사가 시작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Advertisement for '2007년 2월 국제영어학과 모집 화동사범대학' (2007 February International English Department Recruitment Hwado Normal University). It lists various departments and their details.

Advertisement for '한익대 입학생 모집!' (Hanik University Student Recruitment!).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student and text promoting the university's programs and contact information.